세계불교학대회 개막…韓불교학 알리다

8월 15~19일 서울대 일원서 개최
첫 한국 대회… 국내외 석학 참여
코로나19 유행으로 5년만에 열려
韓불교 관련 연구 논문 대거 발표



제19차 세계불교학대회 조직위원회는 8월 15일 서울대 규장각에서 세계불교학회 제19차 학술대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김용태 동국대 교수가 세계불교학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불교미술 관련 발제를 하고 있는 샬롯 홀릭 런던대 교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학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불교학대회가 한국서 처음으로 열렸다.

제19차 세계불교학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은수)는 8월 15일 서울대 규장각에서 세계불교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IABS) 제19차 학술대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세계불교학회는 1976년 창립됐으며 유럽·북미·아시아 지역의 주요 불교학자들을 망라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불교학술단체다. 1978년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유럽, 북미, 아시아를 순회하며 3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태국에서 열렸으며, 한국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17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18차 대회에서 중국 명문 저장대(浙江大)와 열띤 경합 끝에 이뤄낸 성과라서 더욱 값지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으로 2년간 두 차례 연기된 끝에 5년만에 열리게 됐다.

이날 학술대회 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대종사를 비롯해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과 국내외 불교학 석학 250여 명이 참석했다.

조은수 대회 조직위원장(서울대 철학과 교수)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대회의 의미를 되짚었다. 조 조직위원장은 "한국 대회는 세계불교학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회의'로 진행된다"면서 "이를 통해 5일간 33개의 패널과 21개 섹션에 걸쳐 약 200여 명의 직접 참가자와 100명의 온라인 참가자가 참가하게 된다. 5년 전에 기대한 500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놀라운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1700년 한국불교사에서 처음으로 세계불교학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회를 음양으로 지원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한국 대회를 통해 한국불교가 세계에 알려지길 기대했다.

수불 스님은 환영 만찬에서 환영사를 통해 "현재 한국의 K-팝, K-드라마와 영화 등의 K-컬쳐는 세계문화를 리드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한류의 문화적 배경에는 한국 특유의 간화선 정신이 배어있다"면서 "간화선수행이 인류 정신계에서 미래의 대안이 되리라는 것이 한국불교의 원력"이라고 밝혔다.

본각 스님은 "전 세계의 석학이 한국에 모인 것은 한국불교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라며 "내년에는 샤카디타 세계 대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 같은 국제 행사들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간의 대회 기간 동안에는 불교철학부터 문헌학, 미술사, 역사를 비롯해 수행·명상, 사회문제, 윤리학 등 폭넓은 주제의 발표들이 이뤄졌으며 최근 급성장하는 과학기술과 불교 연구를 접목한 연구 주제들도 다뤄졌다. 특히, 한국불교 관련 연구를 담아낸 패널과 섹션이 다수 포진돼 눈길을 끌었으며, 이를 듣기 위한 학인 스님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안준영 미시간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한 '한국불교 연구의 새로운 접근' 패널에서는 한국불교학 연구의 주요 동향부터 한국불교 1세대 페미니스트 일엽 스님의 연구성과, 조선의 숭유억불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을 담은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한국불교학 연구의 주요 동향을 소개한 조은수 서울대 교수는 국내외에서 새로운 자료의 발견으로 연구의 지평이 넓어졌으며, 자료 및 아카이브의 디지털화와 한국 정부의 지원 연구 프로젝트로 주목할 만한 결실을 맺었음을 강조했다.

김용태 동국대 교수는 '숭유억불 개념의 재고와 조선불교 전통의 새로운 인식' 발표를 통해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숭유억불의 개념이 근대기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임을 살피고 조선불교가 쇠퇴했다는 선입견을 재고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연미 이화여대 교수와 이승례 리움박물관 학예사가 조직한 '현대 한국불교의 물질문화' 패널과 이도흠 교수를 좌장으로 한 '아시아의 참여불교의 이론과 실천' 패널에서도 한국불교 전반을 조명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으며, 개별 섹션에서 한국불교 관련 논문 20여 편이 소개됐다.

한편, 학술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8월 20~22일 해인사와 통도사 등 전통산사를 순례하며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불교, '포스트 휴먼' 논한다

불교평론, 8월 26일 창간 기념 학술심포지엄

미래의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적지 않은 학자들은 인간과 기계·기술의 융합으로 경계가 사라질 것을 예상한다. 인간이면서 기계인 '포스트 휴먼'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변화를 불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불교평론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래와 불교'를 주제로 기념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월 18일 밝혔다.

2022년 만해축전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8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포스트 휴먼'의 개념부터 정치, 윤리, 생명 문제, 섹슈얼리티 등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논의들이 이뤄진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포스트 휴먼의 기본 이해와 주요 쟁점'을,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몸속으로 들어온 기계, 몸을 확장하는 기계'를, 이진후 포스텍대학 교수는 '코로나 시대의 생명권력과 생명정치'를, 이범수 동국대 교수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생멸(生滅) 문제'를 각각 발표한다.

또한 김봉률 동국대 교수는 '포스트 휴먼과 불교 그리고 섹슈얼리티'를, 허남결 동국대 교수는 '포스트 휴먼 시대, 인간과 동물의 상생과 공존'을 해인사 국일암 명법 스님은 '포스트 휴먼 시대와 불교의 역할'을 발제한다.

불교평론은 "'포스트 휴먼'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존재는 지금까지의 인간과 여성,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 인간과 자연의 차이를 폐기하고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해 형성된 사회질서와 가치체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통한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밀교학회 '불교학밀교학연구' 창간호 발간

회당학회서 명칭 변경 후 학회지 새로 창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목표
불교·밀교학 등 담아낼 것



진각종 회당학회에서 새롭게 출발한 '한국밀교학회'가 학회 학술지 〈불교학밀교학연구〉 창간호를 발간했다.

'한국밀교학회'는 회당학회를 전신으로 하는 밀교학술단체로 밀교종단인 진각종, 총지종,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이 중심이 돼 운영되고 있다. 진각종 교육원장 효명 정사가 학회장을 맡고, 고문에는 원로스승 혜정 정사와 덕일 정사, 서윤길 前 동국대 교수를, 자문단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장익 前 위덕대 총장 등을 선임했다.

〈불교학밀교학연구〉 창간호는 특집논문과 일반논문으로 구성됐다. 특집논문으로는 △〈공양차제법소〉의 현신성도 의궤화 고찰(정성준 위덕대 연구교수) △금강정경계 경전의 전래와 유통(김치온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연구교수) △〈대승장엄보왕경〉의 사상 연구-〈법화경〉〈화엄경〉, 인도 신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보리심론〉의 전래와 유통-저자 문제를 중심으로(박준석 위덕대 교수)가 수록됐다.

일반논문으로는 △분황 원효의 기신사상- 일심과 본각의 접점과 통로(고영섭 동국대 교수) △간화선의 중도에 대한 고찰-대혜종고 간화선을 중심으로(오용석 원광대 연구교수) △중국 근대 진화론적 시계에서 본 대승현생적 세계와 인간정토의 경계(김연재 공주대 교수) △의례율조 명칭 '소묘'와 일본불교의 특성(윤소희 불교음악원 학술위원장) △〈남양선생시집〉 간행과 〈고려대장경〉 조성사업(최연주 동의대 교수) △힌두탄트라리즘의 세계관 고찰- 시바파 불이론의 36원리를 중심으로(심준보 한국외대 HK연구교수)가 실렸다.

한국밀교학회장 효명 정사는 "밀교 관련 단체를 하나로 묶어 '한국밀교학회'로 명칭을 변경해 불교학, 밀교학, 회당학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학회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향후 학회지 〈불교학밀교학연구〉를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의 무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금강경한문+법화경강좌

부산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부산역 앞 광장호텔 뒤 참맛집 5층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200-13)

대구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이시아 폴리스 태왕아너스타워 상가1층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41)

● 동참자격 : 불교정법 공부를 서원 하신 분
● 수강회비 : 무료 (단, 교재비 3만원 자부담)
● 교육기간 : 1년 2학기 (수시모집)
● 문의전화 : 010-4501-8711

嶺南僧伽大學 總長 崔 空 德